

“윤장현 당선은 DJ 유지 대선 승리 위해 도와달라”

윤장현 지원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락공천한데 대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냈던 박지원 의원이 29일 윤장현 후보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선당후사(先黨後私)’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장 전락공천에 대한 불만을 제기 가장 많이 토로했지만, 새정치연합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2017년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안철수 대표의 윤장현 후보 전락공천에 대해 “안철수는 김대중(DJ)이 아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

지고 있는가’라는 막말도 나오고 있다”며 “윤 후보를 포함해 후보 세 사람이 경선을 요구했고 광주시민, 당원들도 경선을 바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도부는 연휴가 시작되는 밤중에 윤 후보를 전락적으로 공천함으로써 광주시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제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가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했고, 봉변을 당하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광주시민들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윤장현 후보와 함께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윤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깊이 반성하고, 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유세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음주에도 광주에 내려와 윤 후보 당선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은 아무나 하나~ 강운태에 재선 기회 달라”

강운태 선대위원장 이용섭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측 이용섭 선거대책위원장의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무소속 단일화를 통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승복’을 보여줬던 그가 이번에는 한때 ‘경쟁자’였던 강운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광주시장 후보직을 사퇴한 그는 본격적으로 강 후보의 ‘지원 유세’를 벌였다.

유세차량에 오르는 그는 느닷없이 가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개사해 ‘시장은 아무나 하나’를 부르며 10여분 동안 강 후보의 지원 연설을 했다. 이 모습을 본 이 위원장 측근들은 “그동안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본인데,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9일에도 강 후보와 함께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이날 짬 내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그는 “안철수·김한길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느 정치인도 광주시민을 알잡아 보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시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금로서는 강운태 무소속 단일후보를 선택해 낙하산 후보를 이기는 것이 훼손된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광주정신을 살리는 길”이라며 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유세차량을 타고 광주 전역을 홀로 순회 연설하면서 안철수·김한길의 낙하산 공천을 심판하고 강운태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34명은 29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노조 대표자 40여명은 2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조충훈 “순천 신대지구 평생학습지원시설 확충”

조충훈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는 29일 “신대 주민을 위해 평생 학습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도서관 등 부족한 공공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신대택지개발 지역은 향후 3만명의 인구유입을 앞두고 있는데도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면서 “도서관과 공립영유아시설, 수영장, 헬스장, 스퀘어장, 세미나시설을 설립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경 “안전·교육·복지 확산 실현 정책 추진”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는 “군민후보 임호경이 당선되면 ‘안전 확산’, ‘교육 확산’, ‘복지 확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를 위해 ▲화순읍 부영 1차·3차·5차·6차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생활체육 지도자 복지향상 및 생활체육 동호인 권리 증진 ▲보육교사 및 종사원 수당 인상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강은미 “치과의사 104명이 지지 선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지부 이금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치과의사 104명은 29일 강은미 광주시의원 후보(서구 4천거구)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현재 광주시의원 강 후보는 광주시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최초 도입하고, 치과 의료 복지정책을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견인하는 등 시민의 치아건강 향상에 기여했다”며 지지배경을 밝혔다.



오광교 “다섯가지 핵심공약 반드시 지키겠다”

오광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의회 내선거구(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 1동, 동천동) 후보는 29일 “6대 서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버들마을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동천동 광천2교~유촌교 구간 자전거도로 확장 개설, 상무소각장 폐쇄 후 청소년 공부방 확장 시설 및 각 아파트별 작은 도서관 개관 등 다섯가지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상대가 있고 1등만이 존재하는 선거는 싸움터고, 전쟁터다. 그래서 선거용어는 ‘선거전(戰), 전략(戰略)’ 등 전쟁용어가 많다. 선거전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중요 무기는 바로 대변인 논평이다. 후보자의 입을 대신하는 대변인 논평만 분석해봐도 전세를 가늠할 수 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광주시장 선거전도 논평 대결이 뜨겁다.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강운태 무소속 후보의 논평을 통해 선거 흐름을 분석해 봤다.

우선 선거전이 뜨거워 만큼 양측 캠프에서 나온 30여건의 공식 논평은 제목만 봐도 ‘시민 배신한 시민운동가, 밀실야합 공천장, 손발 안맞은 공천 도둑질, 낡은 아이론 올드보이 웬말, 유신독재 시대에 멈춘 시계, 가족이 없는 데 터러는 어디다 붙이

나’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강도높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첫 공격의 포문은 강 후보측이 열었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이 경선 없이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강 후보측은 5, 6, 7일자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시민의 선택권이 박탈된 현실을 사과하기는커녕 되레 시민의 선택, 시민의 시장을 운운했다. 모순과 궤변의 극치”라며 “윤 후보는 밀실야합 공천장을 스스로 찢어야 한다”고 공격의 날을 세웠다.

반면 윤 후보측은 전락공천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7일까지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해명하는 논평을 내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윤 후보측도 8일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이는 7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을

■ 후보캠프 ‘대변인 논평’으로 본 광주시장 선거구도

초반-姜 “전략공천” 맹공...尹, 소극적 해명

중반-단일화 이후엔 尹, 공격적 논평 쏟아내

탈당한 강운태, 이용섭 후보가 무소속 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윤 후보측은 8일 ‘강 후보의 사전오기(四顧五棄)에 대해’란 논평을 통해 “불공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전오기(四顧五棄)란 의미가 강 후보에게는 전(轉)은 뒤집는

다는 뜻으로 4번의 탈당률, 기(棄)는 버린다는 뜻으로 5번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책임지지 않은 자세를 말한다”고 비교했다. 15일자 논평에서는 “윤 후보는 80년 5월 당시 부상자를 치료했는데, 강·이 두 후보는 당시 각각 광주 파견 공무원과 청와대에 복무하면서 무엇을 했느냐”고 공

격하는가하면 16일자 논평에서는 “강 후보가 부끄러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며 시장 후보 중 재산 1위, 탈당, 출마횟수 1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강 후보측도 14일자 논평을 내고 “5·18 당시 사무관이던 직입공무원 강·이 두 후보에 대한 터러운 흑색선전을 시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손발 안맞는 공천 도둑질이 안쓰럽다’는 제목의 16일자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략공천은 안철수 의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실도했다. 이는 안철수가 누구면도 듣지 않았다고 말해 온 것을 뒤집은 것이다. 서투른 공천 도둑질 뒤끝이 개고 수준”이라고 전략공천을 폄하했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양측의 논평 공방전은 26일 강운태 후보가 이용섭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단일후보에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측에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측은 ‘낡은 시대의 아이콘, 올드보이 웬말인가’라는 26일자 논평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이 후보가 승리할 줄 알았다. 강 후보는 시정을 검찰의 안방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이 후보는 장래가 촉망되는 광주의 정치인”이라며 강 후보는 깎아내린 반면 이 후보는 추켜세웠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같은 날 ‘이간질 이 서투르십니다’는 논평을 통해 “윤 후보께서 갑작스레 연사가 거절되자 건 6·4 악몽에 가워워리신 때문 아닌가 여겨진다. 건강을 잘 돌보시길 바란다”는 논평으로 대응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등 최선으로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그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그송
선거차량
UCC로그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 스타 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처럼 살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중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백화점)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5.29.(목)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개별성 성공투자하는 비법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최초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